

**AB3) 실내·외 공기중 부유먼지 측정방법 상호간의 비교평가**  
**Comparative Evaluation of Measurement Methods**  
**for Suspended Particles in Indoor and Outdoor Air**

백성옥 · 박지혜 · 최진수<sup>1)</sup> · 박상곤<sup>2)</sup>

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대기환경연구실, <sup>1)</sup>포항공대 환경공학부, <sup>2)</sup>혜천대학

### 1. 서 론

부유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인되어 있고 신뢰성 있는 측정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. 대기중 부유먼지의 측정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측정원리의 측면에서는 중량법과 광학적방법으로, 포집유량의 측면에서는 high-volume 과 low-volume으로 구분되어지며 입자의 크기별 포집장치의 부착유무에 따라 입도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한다. 먼지측정방법은 그 원리에 있어서는 기기분석이나 습식화학분석에 의존하는 기체상시료의 분석방법과는 달리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진측정에 내재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시료의 채취방법에 따른 측정결과의 상대적인 오차가 클 수 있다는 점이다 (Solomon, 1982). 특히 중량법과 광학적방법 혹은 high-volume과 low-volume 방법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된 비례성 혹은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양자의 상관성은 대기중 부유먼지의 분포특성, 즉 지역 및 계절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나타날 수 있음이 일찍이 현장실측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.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량법에 의한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시료채취 유량을 적용할 경우 측정된 부유먼지의 농도 자료간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, 또한 농도자료간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.

### 2. 연구방법

중량법에 의한 환경대기 중 부유먼지의 채취에서는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의 공과대학 4층 건물 옥상(지상에서 약 15m)에서 1997년 8월에서 1998년 9월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총 6대의 서로 다른 샘플러를 가동하여 총 40세트의 먼지시료를 채취하였다.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10 L/min 이하의 흡인유량을 가지는 6대의 ultra low-volume 샘플러를 이용하여 1999년 4월과 5월에 서로 상이한 농도수준을 지니고 있는 3개의 실내환경 (주물공장, 자동차 경정비센터, 대학연구실) 등에서 실내공기 중 부유먼지의 농도를 측정하였다. 이때 샘플러들은 각각 상이한 유량 조건에서 TSP와 PM10 혹은 TSP와 PM4.0을 동시에 채취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3개조의 샘플러를 구성하였으며, 각 샘플러 당 38개 세트의 시료를 채취하였다. 환경대기 중 TSP의 채취를 위한 샘플러의 구성은 그 채취유량에 따라 high-, med-, low- 및 ultra low- volume 샘플러로 구분하였으며, PM10의 채취는 10  $\mu\text{m}$  이하의 입경을 가진 먼지를 선택적으로 분리채취 할 수 있는 high-vol PM10 inlet(Graseby Anderson/General Metal Works SA/G1200, Impaction type, U.S.A)이 장착된 high-vol 샘플러와 그 외 PM10 입도분리가 가능한 low-vol, ultra low-volume 샘플러를 사용하였다. 먼지측정결과에 미치는 여지의 채취효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·내외 환경에서 각각 동일한 종류의 여지를 이용하였다. 환경대기 측정에는 모두 유리섬유 여지를 이용하였으며, 실내공기 측정에서는 pore size가 1  $\mu\text{m}$ 인 태플론 여지를 사용하였다.

### 3. 결과 및 고찰

다양한 시료 채취방법에 따라 측정된 부유먼지 농도자료의 전반적 개황을 요약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. 환경대기 중의 TSP 농도수준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샘플러마다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50~67  $\mu\text{g}/\text{m}^3$  정도로 나타났다. TSP샘플러에 대한 평균농도 측면에서 볼 때 high-vol 샘플러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, medium-vol 및 low-vol 샘플러 등은 각각 high-vol 측정치의 약 80% 및 70% 수준의 농도를 보여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심각함을 암시하고 있다. 환경대기 중 측정된 PM10의 농도를 보면 TSP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, 각 샘플러별로 관측된 농도를 보면 산술 평균값을 기준으로 37~46  $\mu\text{g}/\text{m}^3$ 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PM10 샘플러 역시 공기시료 채취유량이 낮아짐에 따라 그 농도 또한 감소하는

경향을 보이고 있어 샘플러의 선정이나 채취유량의 선정은 결국 PM10의 농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

Table 1. Summary of suspended particulate concentrations measured by different samplers.

Measurement (Flow rate)	Mean $\pm$ S.D.	Median	Range	n	Remark
TSP (1130 L/min)	67.0 $\pm$ 25.4	62.8	28.6 ~ 142.1	40	Outdoor Air
TSP (146 L/min)	49.9 $\pm$ 20.7	43.9	24.8 ~ 122.1	40	
TSP (29 L/min)	54.8 $\pm$ 28.3	50.2	18.7 ~ 124.5	40	
PM10 (1130 L/min)	45.5 $\pm$ 20.0	44.0	18.7 ~ 97.9	40	
PM10 (32 L/min)	39.8 $\pm$ 19.7	35.9	10.9 ~ 97.6	40	
PM10 (5 L/min)	37.3 $\pm$ 22.0	30.9	10.4 ~ 106.4	40	
TSP (10 L/min) - Set A	112.5 $\pm$ 91.1	96.9	16.4 ~ 382.5	38	
TSP (10 L/min) - Set B	123.9 $\pm$ 93.2	107.5	17.7 ~ 404.2	36	
TSP (5 L/min)	118.5 $\pm$ 93.1	104.0	13.1 ~ 421.9	38	
TSP (2.2 L/min)	108.7 $\pm$ 86.1	84.0	18.5 ~ 375.6	38	
PM10 (5 L/min)	63.5 $\pm$ 47.6	51.3	10.5 ~ 194.4	38	
PM4.0 (2.2 L/min)	48.7 $\pm$ 39.6	36.7	10.7 ~ 174.0	38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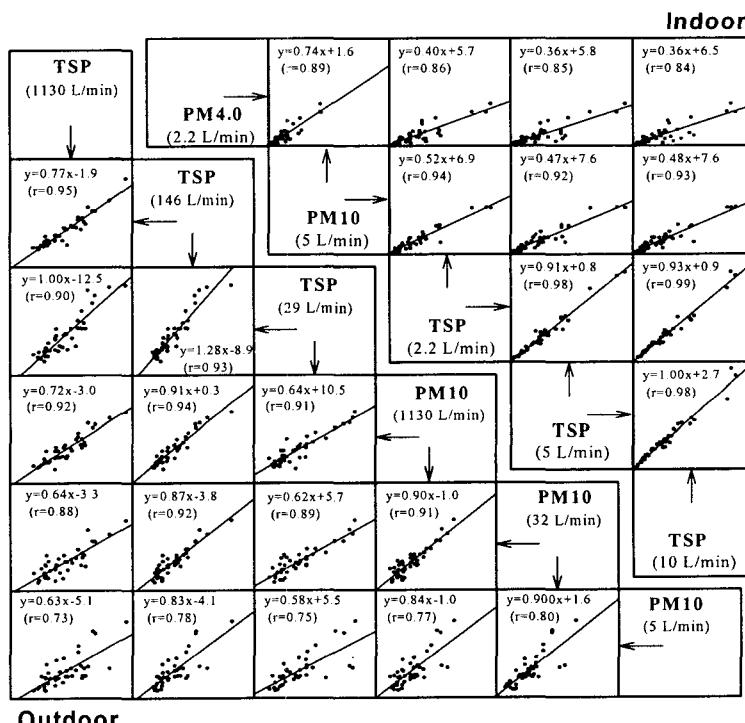


Fig. 1. Correlations among TSP, PM10 and PM4.0 concentrations in indoor and outdoor site.

로 판단된다. 한편, 실내환경에서는 측정된 먼지 농도는 다양한 장소를 임의로 선택하여 시료채취가 이루어졌으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그림 1에는 다양한 유량의 샘플러를 이용하여 측정한 부유먼지 농도 자료에 대해 상관성, 기울기 및 절편을 각각 도시하였다. 그림 1을 통해 부유먼지 측정에 있어서 적용한 샘플러간 측정방법, 채취유량의 차이 등이 동일한 부유먼지 측정항목 상호간에 대해서 서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, 서로 다른 항목간에도 예를 들면, TSP 대 PM10 혹은 TSP 대 PM4.0의 상관성 혹은 이들간의 농도비에도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### 참 고 문 헌

Solomon, P. (1982) Performance comparison of three samplers of suspended airborne particulate matter. *JAPCA*, 32, 373-375.